

A study on the Fashion Reflecting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Japan

- focused on Issey Miyake's works -

Mi-Sung Kim* · Soo-Jeong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riental clothing differs from Western clothing on external formative and internal expressive aesthetic. Becaus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aesthetic architecture and thought, they have a different criterion of measuring aesthetic value. Even though Oriental aesthetic based on Orientalism, Oriental philosophy and religion has aesthetic criteria distinguished Western aesthetic. Especially in the earlier 1980, Japan ranked first in the world and Japanese designers presented new directions affecting fashion trends throughout the wor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Japan and seek for a growing plan with examining designer's works based on it.

Hnae Morii, Dakata Kenjo(60', 70'), Issey Miyake, Rei Kawakubo, Junko Kosino, Yohji Yamamoto(80'), who enter into fashion, showed the compositely design mixed fashion trends of the world with design philosophy based on Oriental culture and the traditional aesthetic of Japan, which has international interest for Japanese fashion. Especially it was Issey Miyake that globalized the traditional clothing of Japan as building the creative fashion world. 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Issey Miyake's works reflecting the traditional aesthetic of Japan.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Japan was divided into two classes-artificial and natural aesthetic. Artificial aesthetic is to decorate complexly and gorgeously without efficacy or utilization. Natural aesthetic which is applied to gener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is to be expressed as simple, removal, amorphousness, asymmetry, incompleteness, ambiguity .

The following is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ciousness trends of Issey Miyake's works.

1. He expressed simple though A Poc of Cloth made of only a piece of cloth covering the human body and simple design excluding decoration though Pleats Please Issey Miyake.

2. He expressed incomplete and asymmetric clothing mixed layering method found in Oriental clothing with Western clothing.

3. His works seemed to be flat because of cutting sleeve and neck line, when putting them, but they were expressed to be unstructured silhouette. This means that it seems to ignore existing clothing but it is made of partial change and drastic try.

일본의 전통 미의식을 반영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Issey Miyake 작품을 중심으로-

김미성* · 배수정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복식에 있어 동양과 서양의 복식은 그 외적 조형미와 내적 표현미가 다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미의식의 구조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어 미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양의 사상, 철학, 종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양의 미는 서양의 미와 다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인류가 지구촌화 되면서 동양과 서양의 미는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패션선도국으로서 자리를 확보하였고 일본 패션디자이너들은 옷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동양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패션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일본의 전통 미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표 디자이너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패션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본패션은 60·70년대부터 파리 패션계에 진출한 하나에 모리(Hanae Mori), 다카다 겐조(Dakata Kenjo), 80년대에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준코 코시노(Junko Kosin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이 동양 문화와 일본 전통 미의식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철학에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 즉, 서구적인 것을 혼합한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일본패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특히 이세이 미야케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디자이너로써 서양 복식의 전통과 원칙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패션세계를 구축하여 일본의 전통복식을 국제화시키는데 성공시켰다. 이런점에서 볼 때, 일본의 전통 미의식이 반영된 디자인을 이세이 미야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일본의 전통 미의식은 꾸밈의 미와 꾸미지

않는 미로 분류된다. 꾸밈의 미는 실용성이나 기능성을 도외시하고 복잡하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꾸미지 않는 미는 불교의 한 종파인 선(禪, Zen)의 공(空)사상과 통하는 것으로 간결, 제거, 무정형, 비대칭, 불완전, 불투명 등으로 표현되어 오늘날까지도 일본인의 일반적인 미의식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에 나타난 전통 미의식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세이 미야케는 인체를 완전히 감싸는 단 하나의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의복인 '한장의 천(A Poc of Cloth)'을 통해 재단상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간결성을 표현하고 있었고, '플리츠 플리즈 이세이 미야케(Pleats Please Issey Miyake)'의 실용라인을 통해 장식이 배제된 간결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둘째, 동양복식에 나타나는 두르기, 매기, 걸치기, 말기 등의 레이어링 방법을 작품에 접목시켜 형이 잡힌 서양복의 고정관념에 도전함으로써 일본의 미의식인 불완전, 비대칭적인 의상을 표현하였다. 즉 봉제를 최소화한 의복을 착용자가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착용자의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작품을 선보였다.

셋째,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은 소매선이나 목선 등을 제거하여 평면형처럼 보이거나 인체에 입혀지면 자연스런 형태감을 주어 하나의 의복이 완성되는 비구조적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기존 스타일을 무시한 듯 보이지만, 부분적인 변화와 과감한 시도로 의복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미의식인 무정형성으로 해석되었다.